

# 유교유적

## 1. 聖師影廟

### ● 소재지 : 광탄면 마장리

광탄면 마장리 127번지에 있는 이 사우는 공자의 遺像을 신위로 모셔 놓았다. 이 영정은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의 넷째 아들 完原君 李懶가 1509년(중종 4)에 사신으로 명나라에 갔다가 명나라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것이다. 이후 완원군의 종손들이 대대로 받들어 오다가 그의 15대 손인 李宗九를 비롯한 후손들과 파주·양주 유림의 주동으로 1917년 완원군을 위한 影廟를 짓고 이의 관리 비용 조달을 위한 位土를 마련하여 받들게 되었다. 퇴락한 성사영묘 건물을 1956년 수리하였으며, 1985년에는 광탄면민들의 성금으로 중건하였는데, 필자가 조사할 당시에는 종손이 따로 영정을 보관하고 있었다. 향사일은 공자의 탄신일인 음력 8월 27일이다.



입지 조건과 건물 배치는 다음과 같다. 입구에는 신성한 영역임을 나타내는 홍살문이 세워져 있는데 이 홍살문과 그 안쪽의 솟을 삼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一'자형 단층 맞배지인 영묘가 자리잡고 있다. 잔디 바닥에서 60cm 가량의 높이로 화강암을 빗쌓아 만든 지대 위에 외별대 기단을 쌓은 다음 그 위에 세운 영묘는 앞면 3칸과 옆면 2칸의 규모( $5.6 \times 3.3m$ )로 가운데 칸보다 좌우 2칸이 좁다.

사당건물은 옆면에서 볼 때 앞쪽 1칸은 개방된 퇴간이며 안쪽으로 출입문과 벽체가 있다. 구조는 잘 다듬은 화강암으로 된 네모 주춧돌( $25 \times 25cm$ ) 위에 두리기둥(지름 18cm)을 세우고 다시 그 위에 대들보를 올린 단순한 방식이다. 단청은 검소하게 磚綠色을 입힌 모루단청이다. 처마는 홀처마이고, 기와는 한식기와를 사용했으며 좌우 박공널에 防風板이 달려 있다. 벽체는 회벽과 전벽돌로 마감 처리했으

며, 창호는 중앙칸이 4짜 쌍여닫이 띠살문이고, 좌우 협칸은 2짜 쌍여닫이 띠살창문을 설치했다. 삼문에서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 가운데 계단으로 이어지며, 따로 동·서 계단을 두었다. 전체 면적 9.9×9.9m인 영묘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은 벽돌담으로서 높이가 97cm이며, 한식기와를 덮었다.

전체로 볼 때 성사영묘는 전형적인 사당의 평면 배치를 하고 있으며 건축 양식이 단순하지만 잘 정된되어 검소하고 단아한 기품을 갖고 있다.

## 2. 李愬別廟

### ● 소재지 : 광탄면 마장리

광탄면 마장리 127번지에 있다. 일면 ‘完原君別廟’라고도 불린다. 배향 인물은 완원군 李愬인데, 그는 전주 이씨 완원군파의 派祖로 자는 得이다. 성종과 淑儀 洪氏 사이에 태어났으며 7세에 완원군에 봉해졌다. 이복 형제인 연산군이 즉위했을 때에는 부여로 유배되었다가 또 다른 이복 형제인 중종이 왕위에 오르게 됨에 따라 유배에서 풀려났다. 중국에 사신을 갔을 때 명나라 황제로부터 공자의 遺像을 받아왔다. 전주 이씨 완원군파에서 향사와 관리를 맡고 있다.



이수별묘는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은 지형 위에 자리잡고 있다. 건물은 높은 축대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입구에 계단이 놓여 있다. 윗부분에는 벽돌담으로 둘러싸인 사당이 위치하며 아래부분에는 재실이 있다.

외삼문인 ‘廣孝門’과 재실인 ‘昭垂齋’는 전통적인 한옥 양식이지만 건물의 재료·구조·규모 등의 면에서 현대적인 건축 방식을 가미한 콘크리트 건물이다. 정초석에 의하면 1990년 4월 29일에 이 건물들이 건립되면서 이수별묘가 부분적으로 해체·재정비되었다고 한다.

사당은 앞면 3칸, 옆면 2칸 규모(5.1×3.0m)의 ‘一’자형 단층 맞배집으로 양 측면에 방풍판을 달았다. 앞면의 좌우칸은 가운데 칸보다 폭이 좁으며 옆면에서 볼

때 앞쪽의 1칸은 개방된 퇴간으로 건물 안쪽에 띠살문을 달았다.

사당의 구조를 보면, 높은 시멘트 기단 위에 잘 다듬은 화강암으로 된 네모 주춧돌( $30\times30\text{cm}$ )을 놓고 그 위에 두리기등을 엎었다. 기둥 중간에 창방을 끼우고 창방과 도리·장여 사이에 소로를 끼운 익공계 건물로 익공의 끝머리에는 쇠서 모양을 내고 위에 닦머리를 달았다. 처마는 겹처마로 모루단청을 올렸으며,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서까래 사이의 양토밑을 그대로 치장하고 색칠했다. 사당 안 바닥은 장판마감을 했으며 앞퇴와 기단 바닥, 계단은 모두 시멘트 미장바름을 했고 나머지에는 잔자갈을 깔았다.

대문인 별묘 출입문은 현재 일각문인데 본래에는 솟을삼문이었던 것을 양쪽 문을 떼내어 고친 것으로 보인다. 문의 처마는 겹처마로서 단청을 올렸으며, 문얼굴에 태극 문양과 홍살을 달았다.

담장은 벽돌담에 한식기와를 얹었으며 재실 오른쪽 뒤편에 높이 약 1.8m 정도인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 3. 長湍鄉校址

#### ● 소재지 : 군내면 읍내리

파주지역에 건립되었던 향교는 적성향교·파주향교·교하향교·장단향교 등이 있다. 다른 향교들은 지정문화재로서 보호되고 있으나 장단향교는 훼철되어 그동안 그 터가 남아있는 것만 알려질 뿐 정확한 위치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장단향교지가 발견되어 확인한 결과 건물의 주초석이 그대로 남아있어 시급한 보호대책과 아울러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향교에서 배향했던 인물은 중국의 五聖賢(孔子·顏子·曾子·子思·孟子),



〈옛 장단향교의 모습〉

孔門十哲(費公·鄆公·薛公·齊公·黎公·徐公·衛公·吳公·魏公·陳公), 宋朝六賢(都國公·豫國公·洛國公·新安伯·郿伯·徽國公)과 한국 十八賢(薛聰·崔致遠·安裕·鄭夢周·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彥迪·李滉·金麟厚·李珥·成渾·金長生·趙憲·金集·宋時烈·宋浚吉·朴世采)이었다. 『長湍誌』 祠廟條에 따르면, 향교의 건물로는 大成殿·東廡·西廡, 대성전의 남쪽으로 明倫堂, 명륜당의 서쪽으로 典祀廳이, 그리고 東齋·西齋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4. 長浦影堂

### ● 소재지 : 문산읍 내포리

문산읍 내포리 341번지에 있다. 海東書聖 金行의 영정을 모신 사우이다. 선조가 하사한 영정을 대대로 종손이 받들어오다가 1974년 8월 김행의 15대손인 金德來의 주선으로 문중에서 영당을 지어모시고 생일인 음력 12월 20일을 기하여 배향하고 있다. 향사 주체는 파주 유림이며, 종손이 관리를 맡고 있다.



김행(1532~1588)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周道, 호는 長浦이며 본관은 江陵이다. 休菴 白仁傑과 廳松 成守璨의 문하에서 사사하하였는데 성수침의 아들인 成渾과 동문수학 하였고 李濟臣과도 친교가 두터웠다. 나이 19세에 감시와 초시에 장원하였고 1566년(명종 21) 생원·진사 양과에 합격하고 다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이후 여러 벼슬을 거쳤으나 성품이 강직하여 주로 외직에 머물고 크게 현달하지는 못하였다. 그는 文詞와 글씨에 뛰어나 필법이 호장활동하다는 평을 들었고, 1575년(선조 8)에 무장현감으로 있을 때에는 安平大君의 「證道歌」를 보완하여 刊刻하였다.

입지와 건물의 배치를 살펴보면, 영당의 뒷산으로 김행의 묘역이 있고 전면으로 긴 타원형 모양의 연못이 있는 양지바른 곳에 영당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장포영당은 전형적인 사당의 평면 배치를 갖고 있다. 앞면 3칸, 옆면 2칸 규모의

‘一’ 자형 단종 맞배집으로 지붕의 박공 부분에 방풍판을 달았다.

사당의 구조는 시멘트 네모 주춧돌(35×35cm) 위에 두리기등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린 단순한 형태이다. 창방 위 중간에 쌍화반을 올려 주심도리와 장여를 받치며 도리는 굴도리를 사용했다. 처마는 겹처마로 건물의 부재면에 모루단청을 곱게 올렸다. 기단은 지면보다 60cm 정도 높여 모르타르 미장바름을 했으며 기단 앞쪽으로 3개의 계단을 놓았다.

옆면에서 보면 앞칸을 터진 퇴간으로 시설하고 건물 안쪽으로 창호를 달았다. 중앙칸은 4짝 띠살문이며 좌우칸은 2짝 띠살문으로 문 아래에 연화 문양을 새겨넣었다.

사당 안에 남빛 문관복을 입은 장포영정이 봉안되어 있는데 이 영정은 80여 년 전에 문중에서 보관중인 김행의 초상화를 보고 다시 그린 것이라 한다. 사당 주변에 네모 반듯하게 시멘트블록으로 담을 돌렸으며 한식기와를 얹었다. 출입문은 홀처마로 된 솟을삼문으로 문얼굴에 태극 문양을 그려넣고 단청을 올렸다.

## 5. 月桂壇

### ● 소재지 : 법원읍 동문리

법원읍 동문리 산725번지에 위치한다. 李學魯 · 曺秉禹 등 유림 25명의 발의로 단종 때 절육신의 한 사람인 芝峯 皇甫仁 묘역에 1924년 4월 단을 세워 절육신들의 거룩한 충절을 기리는 한편 절육신들을 받들어왔다. 한국전쟁 탓으로 수십 년간 제를 올리지 못하다가 파주 애국지사 유지정화 위원회(위원장 이용호)가 발족하여 단 주위를 정비한 뒤 유림이 주체가 되어 1986년 4월 5일부터 해마다 靑明에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이곳에 배향된 인물은 皇甫仁 · 金宗瑞 · 鄭奔 · 金文起 · 閔仲(또는 閔仲) · 趙克寬 등 6명이다.

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황보인(1387~1453)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서 자는 四兼 · 春卿, 호는 지봉이며

본관은 永川이다. 문종의 遺命을 받아 단종을 보필하던 중 계유정난이 일어나 피살된 후 오랫동안 신원되지 못하다가 1746년(영조 22)에 복관되면서 신원되고 忠定의 시호를 받았다. 1791년(정조 15) 莊陵(端宗陵) 忠臣壇에 배향되고, 1804년(순조 4) 집 앞에 정문이 세워졌으며, 1807년 나라에 큰 공훈이 있는 사람의 신주를 영구히 사당에 모시게 하던 不祧之典을 받았다. 영천의 臨臯院, 구룡포읍의 慶南院, 종성의 行營祠에 제향되었다.

김종서(1390~1453)는 조선 초기의 정치가로서 자는 閩卿, 호는 節齋이며 본관은 順天이다. 1405년(태종 5)에 문과에 급제하여 상서원직장·감찰·광주판관·봉상판관·이종정랑·좌대언 등을 거쳐 1433년(세종 15)에 함길도관찰사가 되었다. 그뒤 7, 8년 동안 육진을 개척하여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확장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뒤에 삼도도순찰사, 의정부우찬성 겸 판예조사에 이르렀으며, 1449년에 達達也先이 침입하여 요동지방이 소란해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평안도도절제사로 파견되기도 했다. 1451년(문종 1) 좌찬성겸 지춘추관사로서 『고려사』를 찬진하였고, 같은 해 10월 우의정이 되었다. 이듬해 1452년 『세종실록』 편찬의 감수를 맡았고, 『고려사절요』를 찬진하였다. 1452년(단종 즉위)에 좌의정이 되어 단종을 보필하다가 계유정난 때에 제거되었다. 1746년에 복관되었으며, 시호는 忠翼이다.

정분(?~1453)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서 호는 爰川, 본관은 普州이다. 1406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계유정란 때 전라도도체찰사로 나갈 때 이미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신주를 불살라버렸다. 조금 뒤 감형관이 당도하자 감형관에게 “만약 내가 두 마음을 품었다면 죽은 뒤 맑은 하늘이 그대로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죽음을 받아들였다. 그가 죽자 구름이 일고 비가 쏟아져 감형관과 지방관이 다 우산을 받치고 돌아갔다 한다. 뒤에 忠莊의 시호를 받았다.

김문기(1399~1456)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서 자는 汝恭, 호는 白村이다. 그는 자신의 본관을 金海로 사용하였으나, 김수로 왕을 시조로 하는 김해 김시와는 다른 씨족이므로, 그 후손들은 김해 김씨와 구별하기 위해 본관을 金寧과 慶州로 사용하는 두 파로 갈렸다. 1456년(세조 2) 상삼문·박팽년 등이 주도한 단종 복위 계획이 발각되어 모두 주살당할 때, 그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군기감 앞에서 처형되었다. 그뒤에 이 복위 계획에 가담하였다가 처형된 사람들 가운데 6명(성삼문·박팽년·이개·유성원·유응부·하위지)을 ‘사육신’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南孝溫이 쓴 『秋江集』의 「六臣傳」에 실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이다. 1691년(숙종 17)에 나라에서 공인하여 사육신이 복관되고, 1731년 김문기도 복관되었으며 1757년 忠毅란 시호가 내려졌다. 그뒤에 1791년 단종을 위해 충성을 바친 여러 신하들에게 御定配食錄을

편성할 때 그는 三重臣(민신·조극관·김문기)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고, 사육신은 『추강집』의 「육신전」대로 위의 6명이 선정되었다. 이때 김문기에게는 앞서 1453년 계유옥사 때 死節한 이조판서 민신과, 병조판서 조극관과 같은 판서급의 중신이 되는 까닭에 삼중신이란 칭호가 내려진 것이다. 경상북도 금릉군 지례의 剎溪書院에 향사 되었다. 그런데 1977년 7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사육신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끝에 김문기를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할 것을 만장 일치로 결의하였다.

민신(?~1453)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서 호는 遊菴, 본관은 驪興이다. 문종 때 병조판서를 지내고 1453년에 이조판서가 되었다. 김종서 등과 함께 어린 단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쓰다가, 왕위를 엿보고 있던 수양대군 일파의 적이 되었다.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그를 부사로 지목하였으나 병을 평계로 따라가지 않았다. 그해 10월에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기 위하여 계유정난을 일으키자 수양대군의 명을 받은 삼군진무 徐遭에 의하여 顯陵(문종의 능) 碑役을 감독하던 가운데 참살되었다. 정조 때 관작이 회복·신원되었다. 삼중신이라는 예칭으로 불린다. 시호는 忠貞이다. 공주 동학사에 있는 肅慕殿과 장릉 충신각에 배향되었다.

조극관(?~1453)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서 본관은 楊州이다. 1414년 알성문과에 을과 3등으로 급제하여 사관에 등용되고 1418년 서연에 나가 세자인 讓寧大君을 보필하던 중 이해 세자의 난행을 막지 못한 죄로 파직되었다. 그뒤 다시 등용되어 우정언·지평·이조정랑·사헌부장령·지형조사·형조참의·우승지·공조참판·평안도도관찰사·병조참판·이조참판·황해도도체찰사·예조참판·형조판서·함기도 도관찰사·동지중추원사가 되었으며, 동지중추원사로 있을 때 함경도 일대에 축성을 하여야만 국가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상계하여 성곽을 보수 또는 신축하고, 군사의 훈련 제도를 강화하는 등 국방 경비에 힘을 기울였다. 같은 해 형조판서·대사헌을 거쳐 곧 병조판서가 되었다가, 얼마 뒤 우찬성이 되었다. 1453년 이조판서가 되었지만,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에 김종서의 일파로 몰려 피살되었다. 영조 때 신원되었다.

월계단은 황보인 묘역 입구의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고 있다. 가로 13.7m, 세로 7.8m의 장방형 넓이에 높이가 60cm인 ‘亞’자형 철책이 돌려져 있고, 안에 신위로 모신 비석 6개가 나란히 놓여 있다. 비석의 내용을 오른쪽부터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 째 : 領相忠定公諱 仁

두 번 째 : 左相忠翼公諱 宗瑞

세 번 째 : 右相忠莊公諱 奔

네 번 째 : 史判忠毅公諱 文起

다섯번째 : 史判忠獻公諱 伸

여섯번째 : 兵判忠獻公諱 克寬

미끈하게 잘 다듬어진 비석들(모두 너비 23×두께 12×높이 85cm)은 모두 1.8m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 비석들은 웃머리가 둥글고 비대 위에 놓여 있다. 북돌과 결방석으로 상석의 앞뒤를 받쳤고 향로석과 퇴주대를 갖추고 있다.

또한 비석이 놓인 면을 따라 흙을 북돋우어 줄향나무가 심어져 있다.

## 6. 尚書臺 追遠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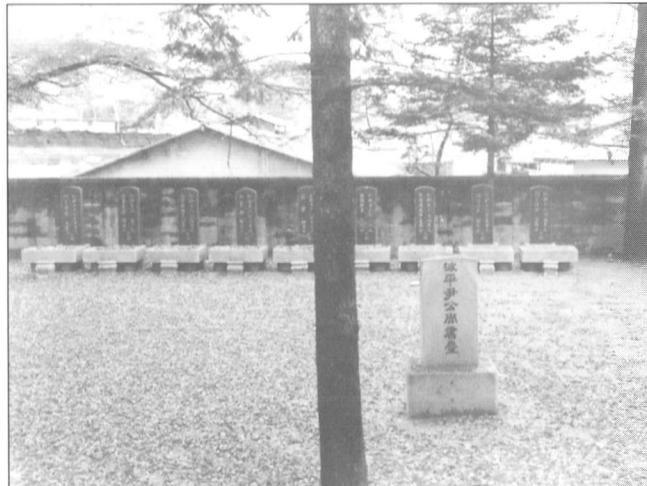
### ● 소재지 : 법원읍 웅담리

법원읍 웅담리 320번지에 있다. 고려시대의 명신인 윤관이 상서로 있을 때 여가를 틈타서 시문과 휴양을 즐기고 그뒤 여러 대를 걸쳐 그의 후손들이 학문을 닦던 별저가 있던 자리이자, 묘소가 실전된 그의 몇 대 후손들을 받들기 위한 碑壇이 세워진 곳이다.

묘소가 실전되어 전하지 않아 뒤에 여기에 모시게 된 처 음 인물들은, 파평 윤씨의 시조인 윤신달의 6세 尹彥頤를 비롯하여 7세 侍郎公 尹焞信, 8세 유수 尹商季, 9세 녹사 尹復元, 10세 어사 尹純 등의 5위였다. 1838년 (현종 4)에 鈴原君 尹行直과 尹之豐이 파평 윤씨 조상들의 영혼이 서린 이곳을 개수하여 위의 5위를 봉향하였고 그뒤에 이 비석을 세우고 재실과 필요한 기물들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종파에서 奉先契를 조작하여 이를 통해 위토를 마련하여 봉향하였다.

한국전쟁 뒤에 크게 중수하여, 전쟁으로 파괴된 단과 재실을 확장하고 재건하여 새로 尚書公 尹宗謙과 忠簡公 尹承順을 입비하였다가 윤종악의 비석은 다시 옮겼다.

그리고 곰의 영을 불러 위로하는 「낙화암비」를 세웠으며, 북한에 묘소가 있어서 망제로 모셔 오던 11세 尹璫, 12세 良簡公 尹安淑, 13세 鈴平君 尹陟 등을 위한 비와 「熊碑」도 세웠다.



개울을 옆에 끼고 있는 상서대 추원단은 2m 높이의 콘크리트 블록담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가로 4.6m, 세로 10.4m인 장방형이다.

출입문은 1.8m의 폭을 지닌 사주문으로 한식기와를 엮은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담장안의 네 모퉁이에는 느티나무를 심고 그 사이사이에 전나무를 심어 울창한 방풍림을 이루도록 했다.

전체 평면 배치는 가운데 놓인 패평 윤씨 尚書臺碑(너비 54cm, 두께 31cm, 높이 12cm, 비대 높이 47cm)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룬다. 막돌쌓기로 기단을 놓인 정면에 패평 윤씨 시조 윤신달을 포함한 7명의 비와 윤관의 애첩 熊丹의 「舜節碑」가 있다. 출입문 오른쪽에 1991년 3월 10일에 세운 사적비가 있다. 상서대에서 볼 때 개울 건너편에 윤관의 애첩 웅단이 몸을 던진 바위라는 곳에 '落花岩'이라 쓴 비(너비 35cm, 두께 11cm, 높이 82cm)가 있고, 주위에 「尹瓘將軍戰蹟碑」(너비 20cm, 높이 80cm)가 있다.